

‘조기 대선 가시화’... 광주서 대규모 정치포럼 출범

‘광주인포럼’ 3월 3일 DJ센터서 1만명 규모...강 시장·구청장 참여 ‘3·3광주선언’ 내란종식 선봉 천명 “대선시 조직 동원력·지지세 입증” 6일 김부겸 등 비공개 포럼 창립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대규모 정치포럼이 출범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주도적으로 포럼에 참여해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광주선언’을하기로 해 주목된다.

27일 ‘광주인포럼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3월 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3·3광주선언’과 함께 ‘내란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인포럼’ (이하 광주인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

광주인포럼측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근간인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광주시민 1만 명이 모여 내란 종식, 헌법 수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유력 정치인 등이 ‘3인 3색’ 15분 특별강연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식은 3인조 남성 팝페라 그룹 ‘빅맨 싱어

즈’의 공연을 시작으로 포럼 임원 소개와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인포럼 상임대표로는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노동일 광주FC 대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 윤종해 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다.

또 공동대표로는 김보곤 DK산업 회장, 박신애 광주어린이집연합회장, 백현욱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심재섭 전북구의회 의장, 위정순 광주시 여약사회장 등이 위촉됐다.

강 시장과 임택·김이강·김병내·박병규 구청장은 지도위원을 맡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이 유력한 문인북구청장 측 인사들은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인포럼은 ‘3·3광주선언’을 통해 “무자비한 군부 폭력에 맞서 싸웠던 80년 오월의 광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한번 민주주의 꽃을 피워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파멸과 내란 종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하자”고 천명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포럼 참여자들이 친명계 성향인 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강한 조직 동원력과 지지세를 입증하면 뒤이어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듯 포럼 집행부뿐 아니라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nilbo.com



‘솔라시도 시 슈퍼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솔라시도 시 슈퍼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명현관 해남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민 바드르 엘 딘 퍼힐스 공동의장, 고흥권 BS(보성)산업 부회장.▶ 관련기사 3면 전남도 제공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국회 선출권 침해”

8인 전원 일치 권한쟁의 심판 인용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 (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으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

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 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3·1절 대체공휴일... 3일자 신문 쉽니다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